

2 종합

편의성 높은 온라인 강의, 여전히 남은 문제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코로나19 이후 우리학교 온라인 강의는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편의성과 접근성이라는 장점으로 여러 교수와 학생이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 제기됐던 경영학과 전공필수 과목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이를 잘 보여줬다. 이제는 그저 대면 수업의 대안이 아닌, 대학 수업 방식의 한 축을 차지한 온라인 강의를 보여준 그동안의 성적표와 미래를 알아봤다.

장단점 분명한 온라인 강의 문제해결은 함께 고민해야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는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은배(교육공학) 교수는 “온라인 강의는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어 학생의 자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며 “반복학습과 다양한 학습 도구 활용이 가능해 자기주도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지난 7월 공개한 ‘원격수업 인식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서 좋았다’와 ‘나에게 맞는 학습 속도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의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수학습개발원 지상현(지리학) 원장은 교수자와 대학 입장에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설명했다. 지 원장은 “온라인 강의는 강의실을 필요로 하지 않아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기사는 편의성과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부정행위, 집중력 저하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사진=하시언 기자)

그러나 단점 또한 명확하다. 이 교수는 학생 몰입도 저하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동기와 실행력이 없다면 온라인 강의는 단순 출석 체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트리밍 돌린다’(강의를 무음, 배속 재생해 출석률만 채우는 행태)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시험 운영 관련한 어려움 또한 존재했다. 경희사이버대 윤병국(지리학) 교수는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 평가를 대부분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하는 경희사이버대는 동일 IP 추적을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자간 상호작용 저하도 문제였다. 지 원장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팬데믹 시기에

입학했던 백서림(생물학 2020) 씨는 “실험·실습수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들어,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 문제 해결법은 강의 질·보안 기술 함양

몇 가지 해결책은 존재했다. 집중도 저하 문제는 온라인 강의의 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 원장은 “우리학교 온라인 프리미어 강의처럼 고품질 강의를 확대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프리미어 강의는 교수학습개발원이 강의 제작 전문 업체와 전문 스튜디오를 지원해 제작하는 강의다. 현재 ▲경제학원론 ▲공간과 권력으로 보는 세계 ▲모두를 위한 물리학 ▲여성학개론 ▲한국사회의 이해를 고품질 강의로 제공하고 있다. 지 원장은 “셀프 스튜디오나 개인 연구실에서 촬영된 온라인 강

의보다 음질과 화질이 상대적으로 좋고, 개별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프리미어 강의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수강한 권유민(무역학 2024) 씨는 “온라인 강의 중 보기 좋게 편집된 영상이 포함된 강의는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Q&A를 강제화해 학생들이 반드시 질문과 답변을 올리도록 했고,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제적 모둠이 있어야 온라인 교육이 단순한 일방향 전달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의 미래 하이브리드·맞춤형 학습

앞으로 대학 교육 방식은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교수는 “앞으

로는 공장식 원격 강의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자기 설계형 AI 기반 학습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15주 수업 중 절반가량은 대면으로,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식의 블렌디드 수업이 필요하다”며 “학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는 시스템운영개발팀, 콘텐츠전략기획팀, 영상제작팀, 콘텐츠팀이 협력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한다. 윤 교수는 “이제까지 대학 캠퍼스는 ‘공간이 있고 학생이 학교로 가야 한다’는 마인드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경희대 또한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제작,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 원장은 우리학교 필수교양 과목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가르칠 것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더 잘게 분반해 교수자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 강의의 확대로 수업의 질적 저하를 우려한 학생도 있었다. 온라인 강의 경영통계학을 수강한 전영우(회계세무학 2024) 씨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을 때, 질이 낮은 수업을 들었던 경험 있다”며 “온라인 강의가 확대됐을 때, 수업의 질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식과 체계적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평가의 목적은 성적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윤 교수는 “대학은 더 이상 물리적 캠퍼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1면에서 계속 →

LLM 기반 챗봇은 Chat 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원하는 챗봇이다. 범용 생성형 AI 플랫폼은 검색 증강 생성 구조를 통해 다양한 대규모 언어 모델 에이전트를 스스로 제작해,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범용 AI 플랫폼의 예시로는 ‘MindLogic사’의 대학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FactChat’이 있다. 이는 대학용 범용 LLM 플랫폼 구축을 제공한다.

기획조정처 양성병 부처장은 “생

성형 AI 플랫폼의 스튜디오 기능은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다”며 “MindLogic사의 FactChat 기능을 통해 교수가 개인 스튜디오에 특정 과목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스토어에 올리게 되면 수강생들이 들어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교육, 연구, 산업 협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활용 예제를 말하기도 했다. 에이전트란 특정 기능, 예를 들어 과목 설명, 퀴즈 출제 등을 수행하는 지능형 챗봇이다.

이를 여러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

는 공개 플랫폼인 스토어에 생성하면 수강생들은 해당 에이전트를 자신의 학습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공대 AI위원회 출범 행정/연구/교육 지원이 목표

앞서, 공대에선 지난 4월 AI 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대에선 AI와 엔지니어링 결합을 연구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규정 에이전트(행정), 리서치 에이전트(연구), 바이브 코딩(교육)을 주체

로 총 3가지 연구를 목표로 한다.

공대 AI 위원장 임재욱(기계공학) 교수는 “단순 연구나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까지 발전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규정 에이전트는 우리학교 규정, 학부·대학원 시행세칙, 학사 제도 등에 대한 검색 및 질문 답변 AI 시스템이다. 규정 검색 LLM 베타 버전을 제작해 공대 행정실 측에 1차 배포를 완료, 현재 2차 베타 버전까지 제작한 상황이다.

리서치 에이전트는 최신 정보 검

색, 자율 실험 및 분석, 논문 자동 작성 등을 가능케 한다.

임 교수는 “논문을 읽고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딥 리서치, 자동 논문 작성, 논문 리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행정직원 외 교원 및 학생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향후 목표를 밝혔다. 우리신문은 AI 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그 의미를 짚은 이번 보도에 이어, 관련 학과 교수 및 타 대학 운영 사례를 취재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